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하이화이브(주) 칼립소
디자이너 김 경 옥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학과
조교수 금 기 숙

目 次

Ⅰ. 서 론
Ⅱ. Androgynous의 일반적 고찰
Ⅲ. 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 Look의 유형
Ⅳ. 현대 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의 기능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남자와 여자라는 생리학적 성(sex)을 갖게 되고,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성(gender)－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을 획득해 나가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남자는 남성성을, 여자는 여성성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절대적 의미로 당연시되어 왔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고정관념은 형성되어 남자는 남성성이 강한 복식을, 여자는 여성성이 강한 복식을 착용해야 한다고 인식되었고, 복식은 성을 결정짓고 역사적으로 남녀를 구분짓는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패션에 항상 이런 고정관념이 적용되어 온 것은 아니다. 남자나 여자가 이성적(異性的) 이미지의 복식이나 이성의 복식을 직접 착용한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렸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을 뿐 성구분을 무시한 복식의 예가 복식사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근대까지 간헐적으로 나타난 이런 현상은 현대에 이르러 여성 해방운동과 성역할의 변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성의 혁명으로 이어져 새로운 의식구조와 그에 따른 복식 현상을 예고했다. 1900년을 전후하여 여성 패션에 남성복의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60년대 중반부터는 남성패션에 여성복의 영향이 나타나 복식의 선택에 있어 자유로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움은 유니섹스 모드와 연결되었고, 1970년대 뉴웨이브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룩을 출현시켰다. 이것이 바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다. 앤드로지너스의 출현은 결코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앤드로지너스 성향의 표출이며, 시대적 상황의 요구에 따른 표현이다.

최근 국내 청소년들의 자유와 개성의 추구, 그리고 성과 복식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앤드로지너스 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1970년대, 80년대 이후 90년대에도 계속해서 패션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앤드로지너스의 올바른 학문적 정의와 앤드로지너스 룩의 유형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하여 앤드로지너스가 현대 패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앤드로지너스의 다각적인 연구를 위해 미학, 사회심리학, 복식사의 문헌 자료와 논문, 잡지·신문의 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대중성있는 자료를 발췌하고, 실제적인 시각 자료를 참조하였다.

Ⅱ. Androgynous의 일반적 고찰

1. Androgynous의 정의

Androgyny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androgyny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우 많은 의미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정립을 위해서는 여러 문헌 자료의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한 체계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에 의하면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앤드로스(andros)는 남자를, 지나케아(gynacea)는 여자를 나타내며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 이와 같은 의미에 덧붙여 Alexandra G. Kaplan과 Joan P. Bean은 그리스어에서 androgyny란 단 하나의 유기체안에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존재하는, 즉 양성체(hermaphrodite)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2] 그리고, Vander Zanden은 androgyny를 "성의 고정관념에 관계없이 개인으로 하여금 인간의 전체 범위의 감정과 역할 가능성들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였다.[3]

이상과 같이 문헌에 나타난 의미를 토대로 앤드로지너스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앤드로지너스는 고대 그리스어인 앤드로지노스(androgynos)를 어원으로 하며, 남자를 뜻하는 앤드로(andro)와 여자를 뜻하는 진(gyn)의 합성어로써 크게 두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신체적인 면에서, 즉 하나의 유기체안에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존재하는 hermaphrodite이고, 둘째는 정신적인 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쪽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 전자는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 많이 쓰여진 의미로 현대에서는 육체적인 성보다 사회 문화적인 성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어 후자의 의미가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양성성은 육체적, 성적이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남녀의 심리적인 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Androgyny는 전통적으로 정의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복잡한 결합이며, 전체성(wholeness), 결합(union), 통합(integration)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합, 통합의 의미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이라는 상황하에서 성립된다. 두 특징이 결합되어 하나의 다른 성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 3의 성'[4]으로 존재한다. Peter Ackroyd는 androgyny는 두개의 성이 하나의 형태로 공존하는 것이며, 본질적인 힘의 상태라고 언급하였다.[5] 더 나아가 androgyny는 양성사이의 정신적 조화를 암시하며, 특정한 제한으로부터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여 앤드로지너스의 가장 큰 특성

1)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Ph.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s), 1988, p.9.
2) Alexandra G. Kaplan, Joan P. Bean, 「Beyond Sex-Role Stereotypes :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1976, p.2.
3) 강혜원, 「의상사회심리」, (서울 : 교문사), 1991, p.186.
4) 「Hi-Fashion」, 1984년 10월, p.209.
5)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 Virago Press), 1985, p.122.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androgyny는 각각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유지시키면서 서로를 결합시키는 독특한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요소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또한 앤드로지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적 혁명을 제공하였고, 신체적인 성(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여자는 여성성을 가진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비현실적인 고정관념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시켰다.

물론 이러한 양성성의 개념도 고정 관념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오랫동안 고정관념의 근원을 형성했던 성의 양극화의 이분법적 시각을 거부한 이론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앤드로지너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으로 양쪽성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나타나는 자유로운 감성이다. 일반적인 앤드로지너스의 의미는 정신적인 면의 특징 결합의 의미를 중요시하였지만, 이러한 관념은 복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제 앤드로지너스는 패션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용어도 패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 Androgynous의 출현

June Singer는 1976년 그의 저서에서 "먼 미래에 사회 평론가들은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시대를 회고하며 그것을 'androgyny의 시대'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예언했다.[6]

Androgyny는 아직 우리의 시대안에서 명백하고 익숙하지 않을 뿐 어느 곳에서나 숨어 흐르는 강(hidden of river)[7]으로 존재해 왔다. 그리고, 앤드로지너스 의식은 여성 운동이란 촉매작용을 통해 확대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Carolyn G. Heilbrun은 "앤드로지너스적 생각은 내가 이 책(1982년)을 쓰기 시작했을때 바랬던 것보다 더 빨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늘날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androgyny에 대해 말한다."고 하여[8] 앤드로지너스가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의 이미지가 나온 것은 19세기 즈음으로, 이 당시 여성 운동의 본격적인 활동은 먼저 여성에게 있어 활발한 사회활동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성역할의 변화를 초래했고, 이것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을 의미하는 앤드로지너스의 개념과 일치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성역할의 변화,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 세계화와 다원주의 시대에 돌입 등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한 개인에게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는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양성성을 가진 인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대에 두드러진 앤드로지너스라는 용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신화·전설, 종교,문학, 철학, 사회 심리학, 정신분석 의학,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앤드로지너스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문자로 발견되었으나, 그 개념은 이미 원시시대부터 있었다. Androgyne의 최초의 독성은 원시인들의 신

6) June Singer, 「Androgyny :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 Anchor Press / Doubleday), 1976, p.22.

7) 앞글, p.22.

8) Carolyn G. Heilbrun,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 London : W. W. Norton & Company), 1982, pp.xi-xii.

화, 전설, 종교적인 전통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종교와 문학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패션에서 앤드로지너스라는 용어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패션에 나타난 최초의 앤드로지너스는 샤머니즘 문화에서 제사나 주술 행사를 주관했던 사제의 복장이다. 그들은 신의 신성함과 힘을 얻기 위해 이성의 복식을 착용했다. 그러나,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라는 용어의 출현은 먼저 19세기 로맨틱 시대의 문학과 예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앤드로진이란 단어가 잘못하여 멋부린 옷을 입은 무능력하게 된 젊은 남자 또는 보이쉬한 외관을 가진 여자들에게 적용되었다."[9]라는 표현에서 패션에 쓰이지 않았던 앤드로지너스라는 용어가 비로소 패션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13년 앤드로진은 「Le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의 패션 도판의 테마로 등장하였으며,[10] 그 후에도 여러 패션 관련 서적과 기사에서 앤드로지너스의 출현을 볼 수 있다. 앤드로지너스는 1970년대에 록 스타들의 패션에 나타나면서 1980년 중반에 가장 두드러져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정착되었다.

3. 일반 예술에 나타난 Androgynous

예술은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다. 예술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구조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반영해 주므로, 일반 예술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의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일반 예술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는 주로 연극에서 남자가 여장을 하는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대 예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앤드로지너스는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이나 사회 문화적으로 가해진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이성의 요소를 도입하고 여기에 현대적인 일렉트로닉스 미디어의 보조를 받음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한 것으로 1970년대 이후 연극·영화, 무용,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음악에서의 앤드로지너스는 록 스타들의 패션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앤드로지너스적 복장은 앤드로지너스 룩의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cross-dressing과 성적으로 불안정한 록 스타들의 출현은 성역할에 대한 완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50년대에는 반짝이는 복장과 androgyny 모두를 대중화시킨 첫번째 대중 록 스타인 Little Richard, 그리고 Elvis Presley가 있었으며, 그들의 패션은 80년대 앤드로지너스 복장의 록 가수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후, 1980년부터 1983년까지 Eurythmics의 Annie Lennox와 Culture Club 의 Boy George는 앞선 10년의 androgyne의 원형을 부활시키고, 패션을 통해 그것을 재해석시켰다.[11] 그러나, 여기서 핀 스트라이프의 테일러드 슈트와 짧은 머리의 Annie Lennox는 패셔너블한 감각으로, David Bowie나 Boy George는 성적인 침략자로 인식되었고, 여성 패션의 남성화는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 단계로 인식되지만, 남성 록 복장의 여성화는 사회적인 위계 질서의 혼란으로 받아 들여졌다. Kathleen Beckett는 1984년 「Vogue」지에서 "오늘날, unisex dressing은 앤드로지너스로써 언급되고 계속해서 장벽의 붕괴와 그 현상-앤드로지너스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2]고

9) June Singer, 「Androgyny :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1976, p.32.
10)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 A Cultural History」,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230.
11) Mablen Johes, 「Getting it on」, (N. Y. : Abbeville Press), 1987, p.143.
12) 「Vogue」, 1984, August, p.156.

기사화했다.

같은해, 「Life」지에서는 Michael Jackson을 Boy George, Prince와 함께 앤드로지너스의 매력을 가진 제 1의 뮤직 스타로 지적하였고,[13] 「Time」지에서는 Boy George와 androgyny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면서 Michael Jackson, Annie Lennox, David Bowie, Boy George를 성도착(transvestites)의 주인공들로 소개하였다.[14] 그리고, 1985년 5월 「Mode et Mode」에서는 음악에 있어 앤드로지너스를 Boy George와 같은 유니섹스의 이미지와 Grace Jones, Nina Hagen, Annie Lennox로 대표되는 넌섹스(non sex)의 이미지의 두 가지로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앤드로지너스는 일반 예술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음악을 통한 록 가수들의 복장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1984,5년도에 집중된 앤드로지너스 복장의 록 가수들의 기사를 통해 1970년대 David Bowie이후 1980년대 중반에 가장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4. 현대 패션과 Androgynous

그동안 관념적인 의미를 지녀온 앤드로지너스는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이라는 용어로 다시 태어났다. 정신적인 면의 앤드로지너스는 그 개념을 복식이란 도구를 통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결합시킴으로써 시각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났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異性)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 방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매니쉬한 헤어 스타일을 하며, 남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여자와 같은 헤어 스타일을 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것이 앤드로지너스이다.[15] 또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을 뛰어 넘어 한가지 성위에 다른 성의 요소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로 통합된 완전한 존재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며, 남성이라는 육체 위에 여성적인 복식을, 여성이라는 육체 위에 남성적인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성을 초월하여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었다.[16] 그러나, 1990년 이후 최근의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이러한 관념의 표현보다는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앤드로지너스는 양성의 특징 결합이라는 명목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융합시켜 나타내는 것으로 자유로운 조화는 앤드로지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와 같이 앤드로지너스 룩은 관념적인 앤드로지너스의 개념이 시각적인 특징을 갖는 의복의 형태로 나타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서로의 특징을 자유롭게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멋을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조화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나타내게 된다. 그것은 양성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이다.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중성적 이미지는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다. 중성이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또는 남자같은 여자, 여자같은 남자를 의미한다.[17] 앤드로지너스 룩은 글자 그대로 양성

13) 「Life」, 1984, September, p.100.
14) 「Time」, 1984, July 23, p.46.
15) 「Hi-Fashion」, 1984년 10월, p.209.
16)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61.
17)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서울 : 민중), 1993, p.1986.

적 이미지의 것이지만 중성적 이미지도 발산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의 앤드로지너스는 유니섹스와는 달리 남녀 공통된 의복의 교류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에 의한 전유물로써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복식을 서로 교류하여 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 앤드로지너스 룩은 크게 네 가지의 표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직접적인 이성(異性)의 단품(單品)이나 소품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이다. 주로 여성은 남성의 전유물중 하나였던 셔츠와 바지 슈트 등을 착용하고, 남성은 스커트나 블라우스를 착용함으로써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이성(異性)적 이미지의 디자인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여성의 복식에는 직선이나 거친 소재, 무채색 등을 사용하고, 남성의 복식에는 여성적인 곡선이나 부드러운 소재, 화려한 색 등을 사용함으로써 앤드로지너스 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로써 앤드로지너스 룩을 표현하는 것이다.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은 앤드로지너스의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메이크업에 의한 중성적 이미지와 여성의 짧은 머리, 남성의 긴 머리는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넷째,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복식의 코디네이션에 의한 표현이다. 남녀가 공통된 의복을 착용하고 나름대로 코디네이션함으로써 앤드로지너스 룩을 표현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패션에 있어서 앤드로지너스의 용어 출현은 먼저 19세기 로맨틱 시대의 문학과 예술에서 볼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1913년 「Le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의 패션 도판에 테마로 등장하였다. 또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좁게 재단된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슈트를 입고 거의 같은 포즈로 나란히 서 있는 「Bernard de Monvel Boutet」의 패션 도판은 우리가 흔히 앤드로지너스 룩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18]

〈사진 1〉 앤드로지너스 룩, 1913년.
출처 : 「Men & Women」, back cover.

패션 역사가인 James Laver도 1920년대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의 패션에서 소년을 닮은 앤드로지너스한 여성을 볼 수 있고, 1970년, 1980년대의 소년들에게서 앤드로지너스를 볼 수 있다[19]고 앤드로지너스의 출현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대에 들어서 여성복에 있어 테일러드 슈트의 개발과 매스큘린의 경향이 생겨났고, Anne Hollander는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앤드로지니(new androgyny)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중간 지점을 향한 평행적인 움직임보다 매스큘린 룩을 모방하고자 하는 여자들의 의식 작용이다."[20]라고 하

18)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 A Cultural History」, 1988, pp.230~231.
19)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1988, p.343.
20)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 A Cultural History」, 1988, p.230.

여 1980년대 패션에서의 앤드로지너스에 대한 개념이 여성들의 매스큘린 룩의 모방에 맞추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매스큘린 룩의 모방은 남성들의 여성적 감성의 표현과 더불어 양성의 자유로운 특징적 결합인 앤드로지너스 룩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앤드로지너스는 rockers에 의해서 크게 강조되어 1984년이래 성혁명으로 대중적인 화제가 되어 나타났다. 「Fashion 86」에서는 'Changing Sex Painlessly'라는 제목 하에 85년의 패션 경향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Le Style Bowie', 미국에서는 'Annie Lennox', 영국에서는 'Fleet Street'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남성의 옷장에는 다양한 레이스, 랩 스커트, 투명한 셔츠 등이 보이고, 여성의 것에서는 남성적인 신발과 넓은 어깨의 재킷이 보인다."[21]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패션계에 출현한 앤드로지너스는 84년 이래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제 앤드로지너스의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 있어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편화된 패션의 표현으로 정착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는 20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혁명적 복식중 하나로써 특히 여성 해방운동과 성역할의 변화에 대한 성혁명은 앤드로지너스의 출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앤드로지너스의 촉매가 된 여성 해방운동은 근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역할의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복식에서는 여성복의 남성화, 나아가 남성복의 여성화 현상이 일어났고,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유니섹스 모드가 나타났다. 특히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20대의 청소년층으로 자란 전후 베이비붐 세대는 물질적 풍요속에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하였고, 70년대 후반 베이비 붐세대가 30대가 되면서 여성은 커리어 우먼으로서 남성과 같은 전통적인 복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매스큘린 룩을 등장시켰고, 70년대 말에는 매니쉬 룩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여성 해방운동의 성격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의 여성 해방운동이 남녀 평등만을 중요시하여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것에 비해 1980년대의 여성 해방운동은 여성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성의 해방 운동만이 아닌 남녀 공동의 해방운동으로의 전환적 요소를 첨가시켰다. 이러한 성향은 복식에도 반영되어 각자의 성을 인정하고 상대방 성의 요소를 복식에 도입하는 앤드로지너스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한편 70년대 후반 또 다른 영세대가 아방가르드한 패션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을 뛰어 넘어 파격적인 펑크 패션과 전위적인 앤드로지너스 등 거리 패션을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새로운 패션의 흐름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여기에 록 스타들의 복장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중반의 빅룩, 후반의 레이어드 룩 이후 1980년대에는 라인이나 룩이 불확실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심리가 고조되었고, 문화적 다원주의로 인해 동양적인 것이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디자이너들의 길치고 두르는 식의 패션 표현법은 전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비구축적인 형태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면 가치 표출[22]의 영향을 받은 서로 대비되는 특성의 혼재에 있어 남녀의 성구분은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더불어, 개성과 자유로

21) Emily White(ed.), 「Fashion 86」,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6, pp.95~100.

22)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면 가치 표출은 종교, 문화, 성, 사상 등에서 서로 상반되는 것을 조합하여 코디네이션 시킨 것으로써 성에 있어서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복식을 통해 융합시켜 나타내고 있다.

운 감성의 추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앤드로지너스 룩의 가장 중요한 출현 배경이 되고 있다.

앤드로지너스는 기존의 남성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패션 요소를 여성이 수용하고,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 오던 액세서리, 화장, 장식화 경향을 남성이 수용할 기회를 제공했고, 기존의 남성과 여성상을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시켜 패션의 폭을 한층 넓게 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1960년대 유니섹스 룩에서 벗어나 여성만의 변화가 아닌 남성도 변하게 만들었으며,[23]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념을 뛰어 넘어 하나의 성이 다른 성의 요소를 복식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할 수 있는 패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속에서 출현된 앤드로지너스 룩은 현대 패션속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그 의미가 커져 이제는 변화를 요하는 패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Ⅲ. 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 Look의 유형

1.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이란 라틴어의 trans와 clothe를 뜻하는 vestire의 합성어로 반대되는 성(sex)의 의복을 채택하고 자주 이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24] 이것은 이성의 옷을 입거나 몸짓을 하는 성도착증을 나타낸다. 보통 반대되는 성에 관련된 의복을 입는 어떤 사람도 학술적으로는 성도착자라고 불려질 수 있으며, 반대의 옷차림은 그 범위가 성욕 도착적 방법으로 (이성의 장신구 따위로 성적 만족을 얻는) 이성의 의복 항목 한가지를 착용하는 데서부터, 가발에서 하이 힐까지 전체적인 옷차림에 이를 수 있다.[25]

Transvestism은 페티시즘(Fetishism)과 구별되지 않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transvestism과 fetishism은 다르다. Transvestism은 의상(복장)도착증으로 이성의 복장을 하고, 그 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성적 이탈[26]이다. 이에 비해 fetishism은 이성의 물건으로 성적 만족을 반복해서 얻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의 상징으로 무생물의 대상을 숭배 또는 사랑하는 것으로 특히 성적 관심을 갖는 것이다.[27] 이로써 transvestism은 fetishism에 비해 성도착에 있어 복장에 한정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패션은 주술이나 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Peter Ackroyd는 transvestism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샤머니즘적 문화에서 transvestites는 남자가 여자처럼 옷을 입음으로써 생기는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공동체안에서 신성한 권위의 원천인 마술사나 공상가로써 간주되어지고, 이 이중성은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신의 앤드로지너스적인 성질을 생각해 볼 때 신성함의 표시로써 보여진다고 언급하였다.[28] 또한 Peter Ackroyd는 복장 도착을 주술성(fetishistic)과 무질서(anarchic)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29] transvestism은 록문화의 탄생과 함께 무질서의 상징으로 존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23) 김민자, "매스큘린 룩", 「월간 멋」, 1991년 11월, p.173.
24) 「Webster's New Coll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achusetts, U.S.A : G.&C. Merriam Company), 1973, p.1243.
25) Susan B. Kaiser 저, 김순심 외 3명역,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경춘사), 1991, p.319.
26) 이우주 엮음, 「영한 의학사전」, (서울 : 아카데미 서적), 1995, p.2524.
27) 앞글, p.901.
28)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1985, pp.121~122.
29) 하지수,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44.

transvestism은 인류가 생겼을때부터 존재했고, 주술적인 신성함과 무질서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때 앤드로지너스의 성향은 시대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서 앤드로지너스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민선은 이성의 복식 디자인 요소를 전체에 도입한 경우에도 착용자의 성을 완벽하게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착용자의 성에 관한 단서는 반드시 남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성적 이미지는 복식의 이성의 이미지를 일부 혹은 전체를 도입한 경우 즉, 복식에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돈된 경우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내리고 있다.[30]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이 정의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전체적인 복식의 이성적 이미지의 도입을 통하여 착용자의 성을 위장하기 위한 남장 여자나 여장 남자의 경우는 transvestism으로 분류하여 앤드로지너스의 표현 양식의 하나로 살펴보기로 하고, 부분적인 이성의 이미지 도입으로 인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화를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주신 Dyonisos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진에서 남성들이 여성복식을 채택하였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의 이성의 복식 착용은 추수와 풍요의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연에서도 여자 역할은 남자 배우가 맡게 되었다.

중세 중기(11~13C)에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복식에 있어 남녀의 성차가 구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transvestism은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에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여자 옷을 입고 미사를 드리던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바로크(17세기) 후기에는 문명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져 남성이 여성처럼 옷을 입는 것은 비문명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성 배우의 성전환은 고대의 신성한 기능을 상실되고, 코믹한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이러한 의미는 로코코 시대에도 이어져 남성의 여성 복식 착용은 희극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무정부주의 같은 무질서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스파이나 보디가드로써의 임무 수행 시에 남자가 여장을 하여 자신의 성(sex)을 숨기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남자의 복식이 단순화되면서 남성의 여장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19세기 후반 여성의 사회 진출로 1870년대 이후 여자 복식의 간소화, 남장화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여류 소설가인 조르쥬 상드는 여성들을 환영하지 않는 극장이나 레스토랑에 갈때 남장을 하였고, 남북전쟁 당시 여성 군의관이었던 메리워커는 남성복장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transvestism이 직업의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1, 2차 세계대전때의 직업 수행시 간편함을 위한 여성의 남성복식 착용에서도 볼 수 있다.

근대에 와서 여성의 남장화는 독특한 에로티시즘과 결합되어 에로틱 예술에서도 바지 입은 여성들의 이미지가 많이 다루어졌다. 또한 이성의 복식 착용은 동성 연애의 수단으로 쓰여, 여장 남자의 성도착자들은 여장으로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도 했다. 이성의 성도착에 있어서, cross-dressing이 처음에는 에로틱한 만족을 주었을지 모르나, 이러한 의미는 상실되고, 남성 역할로부터의 긴장해소라는 성정체감에서의 해방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31]

현대에 와서도 1, 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여성들은 남성의 유니폼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착용

30)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13.
31) Susan B. Kaiser, 김순심 외 3명역,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경춘사), 1991, p.319.

하였고, 특히 무대 위에서의 여장 남자나 남장 여자가 눈에 띈다. 남성 배우가 여장을 하고 여성의 역할을 하거나 여성이 남장을 하고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깸으로서 보는 이들에게 의외성과 유희성을 주는 수단으로 쓰인다.

이상과 같이 Transvestism은 가장 먼저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무질서적 경향을 띄기도 했으나, 점차 주술적인 기능은 상실되고, 동성 연애나 에로티시즘 등의 향락의 수단이나 코믹한 유희의 수단, 성정체감에서의 해방, 직업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복의 남성화

오랜 세월 동안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우월적인 위치를 누려 왔으며, 기독교의 경우 성서의 창세기에서부터 전개되는 남녀(아담과 이브)관계에서는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가 뚜렷하며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주로 남성들이였다.

이에 반해 고대 이집트에서는 결혼 계약서에 남자가 아내에게 정절과 복종을 맹세했으며, 위반했을 경우에 그는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중세 이후 가부장제가 완전하게 확립되면서 여성은 오랜기간동안 남성 중심 사회로부터 억압되어 왔다.

중세 중기(11~13C)이후 복식은 몸에 맞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남녀의 신체적 특징이 의복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여기에 봉건 제도에 의한 계급 의식이 결합되면서 남녀 복식의 성차가 현저해졌다. 그리고, 중세 말기(14~15C) 비로소 남자는 바지를,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것으로 고정관념화되어 수세기 동안 관습처럼 인식되었고, 현재 여자는 치마나 바지를 입는데 반해 남자는 바지만을 고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속에서도 서구 패션 역사속에서 여성의 복식에 있어 남성화의 노력은 계속되어 앤드로지너스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인 1580년에 일부 여성들은 남성의 비버햇를 썼으며, 남성의 두블렛과 같은 바디스를 착용했다. 그러나, 이런 두블렛의 착용은 남성에 대한 도전이고, 신에 대한 모욕이라 하여 비난하고 처벌을 받았다.

그후 19세기의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은 남성의 복식을 입을 기회를 갖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의 발발은 여성 해방운동의 시작과 때를 같이하여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복식에 있어서 변혁을 꾀하게 되었다. 크리놀린 시대의 절정일때도 여성들은 남성의 복식을 빌려 오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1857년 「La France Élégante」는 "우리의 의복은 남성 의복과 같이 되어 가고 있다."고 논평하였다.[32]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여성 해방운동의 여러 이슈중 하나인 여성의 의상 개혁 운동으로 프랑스 여류 소설가인 조르쥬 상드는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성 전유물인 바지 차림을 즐겼으며, 1850년 Amelia Bloomer 여사는 터키풍의 긴 바지인 블루머즈를 최초의 여성 신문인 「Lily」지에 소개하였으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Amelia Bloomer 여사에 의해 전개된 여성 해방운동이나 의상 개혁 운동에 의해 남성의 전유물로 되어 왔던 바지를 여성도 입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되면서 여성복에 남성적 복식의 이미지를 도입하게 되었다. 19세기말 스포츠가 여성들 사이에서 성행하여 관탈롱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1870년대 이후 여성 의복의 간소화, 남장화는 대담한 변혁으로 남성복과 같은 더블 칼라의 재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활동적인 투피스 슈트가 나오게 되었다.

한편, 스포츠 중 승마의 유행으로 승마복이 탄

32)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1985, p.118.

생되었다. 여성에게 있어 초기의 승마복은 반 남성적 앙상블로서 몸에 잘 맞게 재단된 어두운 색의 울 재킷에 길게 늘어뜨린 스커트로 구성되어 여성 복식에 남성적 이미지를 도입한 양성적 이미지(앤드로지너스)를 띠었다.[33] 이와 같은 스포츠의 유행은 여성으로 하여금 바지 착용을 널리 확산시켰고, 넉넉하고 편안한 의상으로 여성을 남성화시키거나 성이 모호한 여성으로 만들었다.

현대로 오면서 1910년대에 여성복 실루엣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아르데코 패션의 선두 디자이너인 뽈 뽀아레가 여성을 코르셋에 의한 육체적 구속에서 탈피시키고, 제 1차 세계 대전 동안 여성의 사회 활동과 지위 향상, 의식 변화는 여성 복식의 남성화를 이끌어 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자유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의복은 더욱 남성 의복의 특징을 띠었다.

그후 1920년대에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 사상, 자유 연애 등이 결합되어 복식의 남성화가 이루어져 보이쉬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1920년대의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은 '엔드로진 스타일(Androgyne Style)' 또는 '가르손느 스타일(Garçonne Style)', 또는 '훌랩퍼 스타일(Flapper Style)'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내면적인 의향을 나타낸 것이며 이런 의향은 여성 복식을 더욱 기능적으로 변하게 하였다.[34] 보이쉬 스타일은 로우 웨이스트의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 곡선을 완화시킨 듀블러 실루엣으로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 근처에 오거나 남장을 모방한 것[35]으로 주름이나 리본 등의 여성적 이미지가 가미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성적 스타일을 유지하여 소년같은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 2)는 '남녀 혼성(Androgyne Style)'의 대표적인 인물상으로 짧은 'Eton Crop' 머리 모양과 함께 전위적인 복식을 보여주고 있다.[36]

〈사진 2〉 가르손느(앤드로진) 스타일, 1920년대.
출처 : 「A History of Fashion」, p.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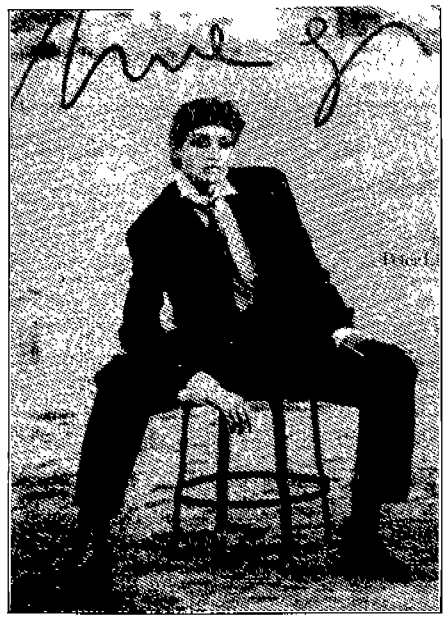
이러한 가르손느 룩은 일시적인 이색(異色)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여성의 복장에 대한 좌표인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성복의 여성복화를 발견할 수 있다.[37]

그후 1932년 영화배우 Marlene Dietrich의 트라우저 슈트 착용은 일종의 세련미와 야릇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의 제 2차 세계대전은 여성 복식에 밀리터리 룩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남성적 이미지를 선보였다.

1960년대는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룩 등으로

33)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39.
34) 김미선, "근대 서구 여성복식의 기능화 요인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p.73.
35)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3, p.296.
36)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Clothing)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202.
37) 조규화,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8(3), 1984, p.29.

〈사진 3〉 이브생 로랑의 앤드로지너스 룩, 1978년.
출처 : 「Yves Saint Laurent Images of Design : 1958~1988」, p.99.



〈사진 4〉 「Vogue(Italia)」, 1993, 10, N.518.

여성적인 것에서부터 남성적인 것으로 움직였고, 60년대 후반에는 미니 스커트와 더불어 남성들의 테일러드 슈트를 모방한 스타일과 청바지를 즐겨 입었다. 한편 이브 생 로랑은 항상 그의 콜렉션에서 맨즈 웨어의 요소를 표현하였고, 1968년 이브 생 로랑의 팬츠 슈트가 발표되자, 바지는 이제 여성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사진 3)은 1975년 이브 생 로랑의 작품으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있어 영화배우 Marlene Dietrich의 남성적인 모습은 디자인의 원천이 되었고, Marlene Dietrich, Katharine Hepburn, Greta Garbo는 트라우저즈와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을 착용해서 매력과 도회지적 감각을 보여 주었다.

1976년 펑크의 등장은 도전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었고, 펑크의 출현과 함께 70년대 말 여성의 패션에 매니쉬 룩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의복에서의 성의 상징은 1960년대, 1970년대에 여성이 획득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로 인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이와 같은 여성 복식에서의 앤드로지너스의 경향은 90년대에도 계속되어 여성들은 남성들의 중요 아이템인 와이셔츠, 넥타이, 남성용 슈즈 등을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며(사진 4),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앤드로지너스는 기존의 여성복의 한계를 뛰어 넘어 디자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예전의 여성복에서의 앤드로지너스는 성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한 신분 상승의 욕구와 성역할에 대한 반항, 남성과 유사해진 여성의 직업 역할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나타났지만, 현대에 와서는 다원주의에 적합한 인간형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무엇보다도 개성 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3. 남성복의 여성화

일반적으로 '여아가 머슴에 같다'는 말보다 '남

아가 계집애 같다'는 말은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남자가 여자같다는 말은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남성들의 행동이나 모양새가 정상적이고 인간 생활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38] 이러한 남성 우월 주의는 아담과 이브의 탄생부터 시작되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 자신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복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으나, 서구 패션 역사상 남성 복식에서 여성 복식의 이미지를 도입한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혁명 이전에는 성의 구분보다 계급이나 부의 차이에 따라 장식의 정도가 달라 여성복과 남성복의 차이가 비교적 적었지만, 현대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남성복의 여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볼 때 복식에서의 장식성은 여성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6, 17, 18세기의 남성 패션은 많은 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남성 복식은 여성 복식의 이미지를 충분히 가진 것들로 퍼프 슬리브와 가는 허리,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모방한 앞부분의 벨리 포인트, 화려한 장식 등을 하였다. 또한 남자도 분을 바르고, 값비싼 브석이나 진주 등을 좋아하여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장신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진 5)는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의 왕 헨리 3세 (Henri Ⅲ)로 현대 시각에서 보았을때 앤드로지너스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사진 5〉 앤드로지너스 King, 16세기.
출처 : 「Fashion : The Mirror of Fashion」, p.122.

바로크 시대는 남성들이 여성 복식을 모방하려는 여성적 취향이 주도하던 시대였다. 다채로운 색상과 자유로운 곡선의 사용, 계몽주의에 의한 현세의 향락 추구는 복식에 더욱 호화로운 성격을 가져다 주었고, 남성 복식에 앤드로지너스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이 당시 긴 곱슬머리와 후기의 S자형 실루엣은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특히 1590년에 처음 출현한 긴 러브록(lovelock)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 성질 때문에 윤리학자들을 격분시켰다.[39]

1640년대에는 통이 넓고 겉에 브리치즈가 달린 '페티코트 브리치즈'라는 바지가 소개되었는데, Mary Evelyn은 페티코트 브리치즈가 여성적이고 남자들을 양성체(hermaphrodite)의 일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40] 그러나, 여전히 남성에게 있어 바지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고수되었다.

로코코 시대에는 남성 복식에 여성적 취향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적인 곡선과 리본, 레이스, 프릴 등의 장식적 요소의 사용은 물론이고 여성복의 특징이었던 데콜따쥬와 가는 허리, 풍만한 힙, 화려한 머리 장식 등의 경향은 남성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8) 김동일, 「성의 사회학」, (서울 : 문음사), 1993, p.17.
39) Diana de Marly, 「Fashion for Men : an illustrated history」, (Holmes & Meier), 1985, p.46.
40) Aileen Rebeiro, 「Dress & Morality」, (New York : Holmes & Meier Publishers, Inc.), 1986, p.87.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남성복에 있어 앤드로지너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 혁명 이후 남성 복식은 장식성을 배제하고 단순화되어 현대 남자 복식의 원형을 이루었다.

1920년대 후반, 많은 남성들은 여성이 종전의 구속으로부터 탈피된 것을 부러워하고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와 성차별 구조의 피해자는 단지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남성들도 여성 운동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의식의 전환은 남성복의 여성화를 다시 이끌어 내기 시작했고, 남성적인 것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켰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청소년 하위 문화 집단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장벽을 뛰어 넘고자 하는 시도로 앤드로지너스적인 복식을 착용하였다. 특히, 테디들은 남성이 외복에 무관심을 표명하는 일반적인 관념을 깨기 위하여 에드워드 왕조풍으로 한껏 멋을 내는 댄디 집단이었다. 이들은 어깨가 넓고 길이가 길고 드레이프진 재킷과 bootlace 타이, 스웨이드 슈즈와 발목 길이의 좁은 바지를 착용하였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헤어 스타일을 모방하였다.[41] 이 테디 집단은 종래의 남성에 대한 의복의 차림새,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 내지는 기준에 대한 도전으로 의복에서의 fetishism을 성취하였으나, 기존의 합법화된 남성의 이미지를 완전히 변형시키지는 못하였다.[42]

50년대의 테디보이에 이어 60년대 중반의 모즈(Mods)는 1964년경 영국의 카나비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비트족의 일파로 여성스런 남성 패션을 나타냈다. 그들은 비비드한 칼라의 복장을 선호하고, 남자는 머리를 길게, 여자는 머리를 짧게 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와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는 남성의 성역할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남성복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보수적인 남성복이 점차 다양화, 여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들은 단조롭고 제한된 전통적인 남성복에 여성의 유행을 수용하여 복식에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소재와 러플 등의 장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1966년 12월 Munich men's shop에서는 남자용 미니 스커트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패션 역사가인 James Laver는 여자들이 남편을 부양자로서보다 남자로서 선택할때 양성의 옷은 매우 비슷해진다고 언급함으로써 남성복의 하이 패션에의 경향을 현대 남성복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했다.[43] Ernest Dichter는 오늘날의 패셔너블한 남성을 묘사하기 위해 '공작혁명(Peacock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상학적으로도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자유와 연관시켜 졌다.[44] 1967년경부터는 'Peacock Revolution'으로 표현된 남성 의복의 다색화 경향이 본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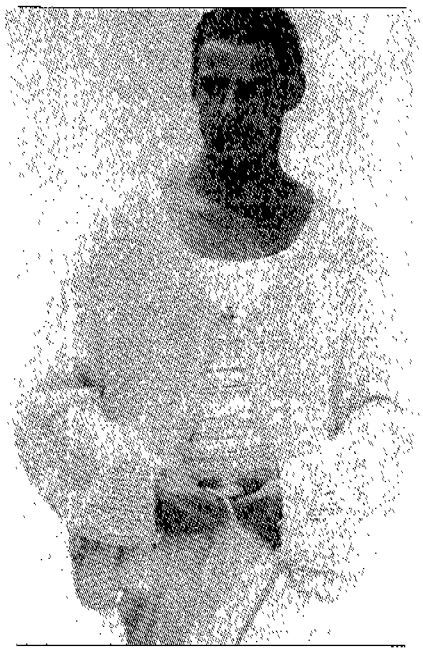
현대 패션에 있어서 소재의 다양화는 남성에게 있어서도 패션의 범위를 넓혀 주었고, 급기야는 여성 전용의 소재라고 생각했던 실크나 니트까지도 남성복에 사용하게 되었다(사진 6). 이로 인해 남성복에 있어 앤드로지너스의 표현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되었고, 다양한 색채와 부드러운 재질

41) Prudence Glynn, 「In Fashion : Dress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9,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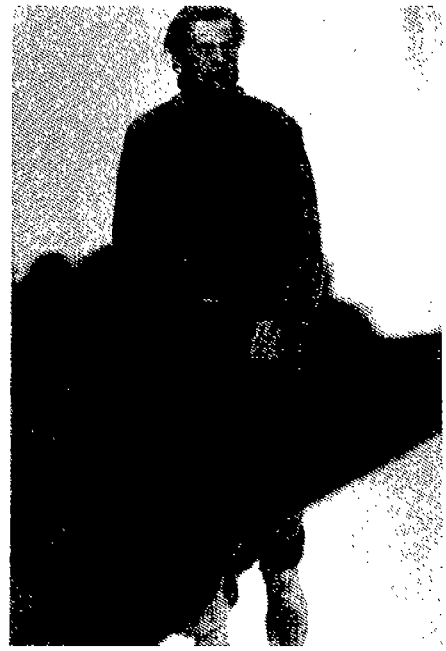
42)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와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1(2), 1987, pp.73~74.

43) M.J. Horn & L.M. Gurel, 이화연 외 2인역, 「의복 : 제2의피부」, (서울 : 까치), 1994, p.137.

44) Alison Lurie 저,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서울 : 경춘사), 1986, p.197.



〈사진 6〉 「Uomo Collezioni」, '94 S/S, p.97.
Dolce & Gabbana 작.



〈사진 7〉 「Uomo Collezioni」, '94/95 A/W, p.46.
Danna Karan 작.

감, 부드러운 선의 테일러드 슈트, 연약한 제스츄어 등은 여성을 방불케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을 형성하였다.

실제로 하이 패션의 국제적인 남성복 라인은 80년대에 결성되었고, 기존의 엄격한 남성복이 아닌 부드럽고 여성적인 모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1960년대 이래로 다시 콜렉션에서 여성 전용의 스키트를 착용한 모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진 7)은 스커트를 남성복의 한 아이템으로 사용하여 바지위에 덧입음으로써 새로운 멋을 창출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의 스커트 착용은 연극이나 패션쇼에서의 유희나 충격 효과만 줄뿐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남성에게 있어 바지는 복식에 있어 남성 복식의 여성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에도 고수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남성의 바지 착용은 고정 관념화되었다. 브라운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의복을 입기는 하지만 여성의 의복을 입은 남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한다"고 하여,[45] 남성의 여성 복식 착용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보여 주고 있다. 영국의 한 산업 재판소의 판결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영국의 산업 재판소는 1995년 1월 13일 여자는 남성들이 입는 기성복을 착용할 수 있지만, 남자는 여성 전용으로 만든 스커트를 입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스커트를 입고 출근하다 최근 상사로부터 꿈지 멍령을 받은 한 남자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한다.[46] 그러나, 이런 남성의 여성복 착용의 시도는 남성복에 있어 앤드로지너스를 향한 또 다른 시도를 낳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4. 유니섹스 룩

45) M.J. Horn & L.M. Gurel, 이화연 외 2인역, 「의복 : 제 2의 피부」, (서울 : 까치), 1994, p.212.
46) 「조선일보」, 1995년 1월 15일, p.7.

종래의 패션과 성에서의 변화는 여성들의 변화로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여성 자유의 외침은 최고조에 달하여 패션에 있어 유니섹스 룩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유니섹스 룩은 더 이상 복식이 성구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47]

유니섹스 룩이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으로 1968년에 소개되어져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룩이 되었다. C. Calasibatta는 유니섹스 의복이란 1960년대 말경에 등장한 것으로 셔츠, 바지, 재킷 등에서 보여지는 남녀 양성의 구별이 없는 새로운 의복 형태라 하였고, 田中千代는 모노 섹스 패션이라 하여 하나의 성 즉 남녀 구분이 가지 않는 의복 형태로 정의하였다.[48]

원래 유니섹스라는 용어는 Robert Oldenwold 박사의 저서인 'The Disappearing Sexes'에서 인용되어 대중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패션 디자이너나 광고업자들은 유니섹스라는 용어 대신 'Dress Alike', 'His and Hers', 'The Couple Look'등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49] 유니섹스 룩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되어 양성적 내지는 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여성복의 남성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60년대에 남녀 복식 모두 이성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뚜렷한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으며, 젊은이들은 패션에 대한 흥미에 있어 남녀의 차이점을 잃었다. 유니섹스 룩은 대중적인 경향으로써 지각되기 전에 대학에서 받아들여져 남녀 학생을 위한 패션으로 시작되었으며, 트렌치 코트, 파카, 가죽 재킷, 니트 직물과 스웨터 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위한 패션으로 수용되었다.[50]

1960년대에 젊은 세대들은 패션을 주도하면서 양성적인 의복을 즐겨 입었고, 이러한 현상에 히피들의 에스닉 무드 애호에 의한 다양한 색과 소재의 수용, 남녀 구분 없는 긴 머리에 청바지 차림 등이 영향을 끼쳐 유니섹스적 표현의 추구를 가속화시켰다. 1966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히피는 소비 사회에 대한 거부이며, 자주 바뀌어 대중을 기만하는 유행에 대한 반대로써 의복을 통해 자기 개성을 표현하려는 욕구였다. 특히, 블루진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히피들에 의해 입혀지면서 기성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반항, 젊음과 자유에 대한 심벌로 받아들여 졌으며, 유니섹스 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되었다. 젊은이들은 몸에 밀착하는 매력적인 꽃무늬의 면직물 셔츠와 체형을 드러내는 밝은 색상의 진바지, 또는 무릎이나 히프에 날염이나 아플리케 자수를 한 바지를 착용하고, 남녀 모두 긴 머리를 하였기 때문에 성의 구별이 어려웠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동일화 현상으로 남녀 구별이 불분명해졌으며, 결국 유니섹스란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 Michael과 Ariane Batterberry가 「Mirror, Mirror : A Social History of Fashion」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두 성을 위한 자유로운 시대였으며, 이들의 옷은 그것 자체가 남자의 것도 아니고 여자의 것도 아닌 것이 되어 서로 교환할 수 있었다.[51]

1950년대 가장 전위적인 디자이너로 평가받던 Rudi Gernreich는 1970년대 미래 패션에 대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전통적인 복장의 상징들은

47) 김민자, "매스큘린 룩", 「월간 멋」, 1991년 11월, p.173.
48)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1988, p.42.
49) 김미경, "현대여성복식의 특성 및 그 의미에 관한 고찰－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pp.52~53.
50) 문 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49.
51) 「Vogue」, 1984, August, p.156.

쓸모없게 될 것이며, ……여자들은 바지를, 남자들은 치마를 상호 교환적으로 입을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며,[52] 유니섹스 의복이 미래의 스타일이 되리라고 확신하였다. Rudi Gernreich는 유니섹스 모드의 선구자로서 그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또한 유니섹스 룩의 성행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James Laver는 남녀의 비슷한 옷차림에 대해 비난했고, 뉴욕 시립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Churles Winich도 그의 저서인 'The New People'에서 이런 현상을 'desexualization(성적 특성의 상실)'이라고 밝히면서 남성과 여성의 스타일이 서로 교류됨으로써 성적 특성이 소멸되거나 중성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복식에 있어서의 유니섹스 현상은 성의 무질서가 혼재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53]

일반적으로 유니섹스는 여성복의 남성화 경향에서 출발된 것으로 본다. Latzke는 여성 의복이 남성화되는 과정은 남성 의복의 여성화보다 제한을 덜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남성 우위성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결국 유니섹스 의복(unisex clothing)은 남성의 권위와 우월감에 대한 여성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54]

또한 유니섹스 룩의 등장은 남녀 역할의 유사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Rudi Gernreich는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태도 변화가 직접 반영된 것이 유니섹스 룩이라고 하였으며,[55] 여성이 더 이상 의상으로 치장하여 남성을 끌어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인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선 것[56]이라고 언급하였다.

문명, 문화의 수준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는 남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힘도 필요로 했고, 그 결과 여성 복식은 점차 남성들의 복식과 유사한 스타일을 즐겨 착용하게 되었으며, 남성들도 다변화된 생활속에서 여성들의 특성을 받아들여 의복에 있어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의 기능적인 면과 상응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니섹스 경향은 남성과 여성을 엄격히 구분하고 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생활 방식을 점차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 패션에 있어 유니섹스 룩은 처음에는 기능성과 청소년 문화속의 자유와 반항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으나, 현재는 누구에게나 입혀지는 캐주얼 웨어로 정착되었다.

유니섹스 룩이 유행하던 1960년, 70년대 이후 1987년 「Hi-Fashion」 5월호에서는 '신 유니섹스'라는 제목으로 남자도 여자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패션을 소개하고 있다(사진 8).[57] 이것은 앤드로지너스에 가까운 성격으로 1980년대 이후 유니섹스 룩에서 앤드로지너스 룩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유니섹스 룩은 남녀가 똑같은 복식을 채택함으로써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이며, 여성들의 청바지와 셔츠 차림과 남성들의 다양한 색채와 소재의 도입으로 인한 화려함, 긴 머리 등의 앤드로지너스적 성향은 유니섹스 모드를 창출해 내는 요소가 되고 있다.

---

52) Claudia Brush Kidwell and Valerie Steele, 「Men and Women : Dressing the Part」, 1989, pp.4~5.

53) 김미경, "현대여성복식의 특성 및 그 의미에 관한 고찰－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p.53.

54) 김재숙, 박춘순, 이영선, "남녀의복 동일화에 관한 태도 연구-대전과 공주군 장기면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6(2), 1982, p.42.

55) 최경희, 강혜원,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9(1), 1985, p.2.

56) 최현숙, "Rudi Gernreich의 작품에 나타난 시대정신", 「한국의류학회지」, 16(4), 1992, p.464.

57) 「Hi-Fashion」, 1987년 5월, pp.7~11.

〈사진 8〉 신 유니섹스 룩
출처 : 「Hi-Fashion」, 1987, 5, p.11.

Ⅳ. 현대 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의 기능

1. 유희성의 표현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fetishism으로 인한 성적 만족, 이성의 복식 착용으로 동성 또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에로티시즘이나 동성 연애, 그리고 코믹 효과로써 얻는 만족과 기쁨으로 유희성의 표현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Fetishism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신체의 부적절한 부분이나 의복의 한 품목을 택하는 일종의 도착증이므로 자연스럽게 이성의 복식 요소를 일부 혹은 전체에 도입하게 하여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게 한다.[58]

이러한 성적 표현의 수단으로 채용된 이성의 복장은 에로티시즘의 표현 수단이 되기도 했다. 19세기부터 바지입은 남성적 이미지의 여성들이 에로틱 예술에서 많이 다루어 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매춘 여성의 경우에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남장을 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 1920년대 유행한 보이쉬 스타일도 에로틱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면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미 남성의 복식이 여성에게 이용 가능해진 지금에 남성 복식은 더 이상 에로틱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한편, 동성 연애자들은 이성 복식의 착용을 성별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외형적으로 볼 때 이들의 이성 복식 착용은 앤드로지너스 룩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의 기능인 유희성의 표현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코믹한 효과이다. 성도착, 역할의 혼돈이 유희성을 통해 표현된다고 하였으며, 정상적인 남성이 강제적인 이유로 인해 여성의 의복을 착용했을때, 남성은 남성의 외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기대에 대한 반전에 의해서 웃음을 터트리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연극이나 영화에서 남장 여자, 여장 남자의 등장은 의외성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신선함을 준다. 여성이 남성의 상징물을 착용하고, 남성은 반대로 여성의 복식 착용으로 여성화하고자 하는 욕구는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이후 계속적으로 그 정도를 극대화시켜 유머러스함을 더해 주고 있다.

2. 성역할의 변화

남녀의 역할을 규정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사고와 행동에서 제한하므로써 그들의 삶의 영역을 축소시켜 왔다. 이와 함께 복식도 남녀를 구분짓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더 나아가 복식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한정지워졌다. 이러한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근대 여성 해방운동과 양대전을 시발점으로 하여 깨어지기 시작했다. 여성 해방운동은 여성의 성역할의

58)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66~67.

부정을 표방하였고, 이것으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바지가 여성의 의복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남성들도 1950년대 말 이후 본격적으로 의복 양식의 다양화를 통해 고정적인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양하고 여성적 표현의 감성을 찾기 시작했다.

2차 대전후 앤드로지너스는 청소년의 하위 문화와 유니섹스, 팝가수나 배우들의 무대 공연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성의 관념에 대한 도전은 청소년 하위 문화의 특징이 되어 외모로 볼 때는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의 혼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남성은 fetishism으로 여성다운 스타일로, 여성은 매니쉬 룩 등 남성다운 스타일로 전이되었고, 패션에서 성의 혼돈(Gender Confusion)은 여성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며, 이는 남성의 패션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무대위의 팝 가수나 배우들은 앤드로지너스적 복장과 행동으로 성의 장벽의 붕괴를 상징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성역할의 부정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성개념의 변화는 성역할의 변화로 이어졌고, 외형적으로는 앤드로지너스한 복장을 통해 뚜렷이 나타났다.

성역할의 변화는 남녀의 직업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여성에 있어 1,2차 대전 이후 직업 수행에 맞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복식의 필요성은 남성 복식의 착용을 야기시켰고, 여성의 남성 복식 착용은 직업 수행에 있어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주었다. 현대 말에 와서는 남성들도 직업에 따라 여성적인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역할 수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에서 남녀의 차이가 희미해진다면 그것은 동시에 양성간의 의복의 차이도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개념의 부정으로 나타난 성역할의 변화는 여성 해방운동과 전후 의식의 변화, 청소년 하위 문화를 배경으로 앤드로지너스 룩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앤드로지너스 룩은 성공적인 직업 역할 수행을 돕고 있으므로 성역할에 대한 정의를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3. 내적 의식의 표현

복식은 인체를 덮는 의복일 뿐만 아니라 정신의 옷이며, 그 시대 그 사회의 생활감정의 표현 내지는 상징으로서 깊은 의미를 갖는다.[59] 이러한 복식의 특징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사회적 불만과 주술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처음 남녀 복식에 대한 이성적 이미지의 수용은 남성에게는 전쟁이후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과 도피의 수단으로, 여성들에게는 기존의 철저한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반항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60] 패션이 과거에 여성을 종속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 종속화에 대한 반항의 도구로써 패션이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복식은 주로 그들의 반항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반항의 피가 흐른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대한 반항, 현실에 대한 반발, 기성 세대에 대한 반항, 기존의 규율에 대한 반항으로 기존의 양식에 맞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패션 양식을 파괴하는 복장의 채용으로 남의 눈에 띄려 한다. 그들은 남성 패션, 여성 패션이라는 한계를 무너뜨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 격식을 갖춰 입기를 거부한다.[61]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앤드로지너스 룩은 그들의 취향에 맞는 패션으로 젊은이들에게 쉽게 수용되어 정착되

59)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1, p.21.
60)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p.23~24.
61) 강정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56.

었다.

현대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적 경향은 샤머니즘 문화에서의 주술적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에서 분리되지 않은 성의 통합은 힘의 근원이며, 신성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제사 의식이나 종교 행사에 있어 남성은 여성의 복식을 착용하여 신성함을 나타냈다. 남성이란 성과 여성의 복식이 결합되어 신의 중성성이 강조되어 인간이 신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최초의 앤드로지너스적 복장은 샤머니즘 문화에 있었던 제사 의식이나 주술적 행사의 사제의 복장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내재적인 사회적 불만과 반항심을 표출시키는 수단으로, 주술적인 내적 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

오늘날 세계는 컴퓨터와 일렉트로닉스가 중심이 되는 과학 기술에 의존하여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 현상속에서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개성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의식을 추구하게 된다. 패션은 이제 소수의 디자이너에 의해 획일적으로 유행되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형식이나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에 맞추어 표현하는 다양성의 시대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복식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20세기 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은 옷입는 방식이 매우 자연스럽고 캐주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의 표현은 패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Jean Paul Gaultier, Vivenne Westwood 등은 복식에 양쪽 성의 요소를 혼용하므로써 성의 장벽을 무너뜨린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활약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어필되었고, 앤드로지너스적 복장은 젊은이들의 감성을 충분히 표현해 주었다. 따라서 신세대의 복식에 있어 캐주얼 웨어에 대한 인식도 '입기 편한 옷'이라는 기존의 개념과 더불어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옷'으로 바뀌었다.

1950년대 이후 전위적인 청소년 하위 문화의 등장은 그들의 이념과 반항심의 표현이었고, 이것은 주로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표현되어졌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를 지내 오면서 사회는 안정화되어 가고, 청소년들의 가치관도 자기 자신 위주로 바뀌면서 앤드로지너스 룩은 이념 표현의 수단보다는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 연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의 성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는 앤드로지너스적인 복식의 착용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현대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는 자유로운 감성 추구의 수단이 되었다.

5. 이상적 인간형의 추구

남성과 여성에 대한 시대적인 이상미의 변화는 패션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 그리고 시대에 따른 이상미의 변화는 이상적인 인간형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20세기초 여성들은 마른 체형을 추구하여 납작한 가슴과 마른 체형, 짧은 머리의 보이쉬 스타일을 유행시켰다. 이는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여성 즉 능력있고 활동적인 여성상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후, 20세기 중반이 지나면서 여성들에게 있어 신체적인 건강미가 이상적인 여성미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의 보호 아래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여성의 연약함을 지양하는 것이고 여성 자신의 자신감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여성의 건강미의 표현은 더이상 여성스러운 복식을 채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그들의 의생활을 통해 활동

성과 유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성 복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세기초 남성들도 그들만이 힘과 위엄을 가진 존재라는 고정관념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후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적 성향이 남성들에게서도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남자들은 감수성같은 더 '여성다운' 특징을 선택하고 있고, 여자들은 진취성같은 더 '남성적인' 특징을 선택하고 있다[62]고한 Naisbitt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도 현대에는 성에 따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있으며, 양성성을 지닌 인간형을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성상은 패션에 앤드로지너스로 표출되었고, 이와 같은 앤드로지너스적 표현은 변화하는 이상적 인간형의 표현 수단이 되었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의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추세는 다원주의에 적합한 인간형을 추구하게 하였다. 다원주의적 인간형은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써의 다양한 능력을 요구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앤드로지너스는 복식을 통해 다원주의에 적합한 인간형을 표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는 변화된 시대적 이상미와 세계화, 다원주의 등 국제적인 환경에 맞는 이상적 인간형의 표현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인간은 오랫동안 여성과 남성이라는 정의에 구속되어 왔고, 이러한 구속은 복식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전통적인 고정관념보다는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이 앞서게 되었고,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 등장하게 되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단순한 성적 구속에서의 해방이라는 변혁의 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감성 표현의 수단이며, 패션에 있어 표현의 다양함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앤드로지너스 룩의 성격은 명칭 그대로의 의미와는 달리 양성적인 것 외에 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이성의 단품과 이성적 이미지의 디자인 요소의 이용, 중성적인 메이크 업과 이성의 헤어 스타일 모방,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코디네이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앤드로지너스의 의식을 불러일으킨 여성 해방운동, 성역할의 변화를 동한 성혁명, 여성복에서의 매스큘린 룩의 등장, 아방가르드한 영세대의 출현, 1970년대 비구축적인 의복의 유행, 록 스타들의 남녀 의복을 크로스 오버시킨 복장과 헤어·메이크업, 대비되는 특성의 혼재와 양면 가치의 표출, 개성과 자유로운 감성의 추구 등을 들 수 있으며, 90년대 이후 그 의미가 커지면서 이제는 변화를 요하는 패션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크게 transvestism, 여성복의 남성화, 남성복의 여성화, 유니섹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Transvestism은 이성의 옷을 입거나 몸짓을 하는 성도착의 하나로도 설명이 되겠으나, 샤머니즘 문화에서는 종교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남자가 여성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완전함과 신성함을 나타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transvestism은 인류가 생겼을때부터 가장 먼저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점차 향락이나 코믹한 유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Transvestism은 이성의 복식을 착용한다 해도 착용자의 성의 고유성은 인정되므로 앤

62) 「Time」, 1984, July 23, p.46.

드로지너스 룩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복의 남성화는 근대 이후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성역할에 대한 반항과 여성의 사회 참여, 인간형의 시대적 변화와 개성 추구는 여성복의 남성화에 있어 추진력이 되었고, 특히 1920년대와 1960년대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복의 여성화는 18세기 이후 1950년대 말에 청소년 하위 문화인 테디 보이 등을 통해 시작되었다. 특히 색상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으나, 아이템인 바지는 계속 고수되고 있다.

1960년대 유니섹스는 패션에 있어 남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남녀의 동일한 의복 착용을 통한 중성적 이미지는 앤드로지너스 룩의 중성적 성격과 통하며, 여성의 청바지와 셔츠 차림과 남성들의 긴 머리와 화려한 색채, 다양한 소재의 도입으로 인한 앤드로지너스적 성향은 유니섹스 모드를 창출해 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하여 앤드로지너스 룩은 현대 패션에 있어 여러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먼저 앤드로지너스 룩은 유희성의 표현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희성의 표현은 성적 만족의 기쁨을 얻기 위한 fetishism, 이성의 복식 착용으로 동성 또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에로티시즘이나 동성 연애의 표현, 코믹 효과에서 얻는 만족과 기쁨으로 함축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사회나 의식 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고정관념에 박힌 성개념의 부정과 직업 수행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또한 내적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불만과 반항심,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의 표출로 강조되었다. 성에 상관없이 인간의 개성이나 감성을 중요시하는 의식은 앤드로지너스 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앤드로지너스 룩은 변화된 시대적 이상미와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다원주의에 적합한 이상적인 인간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은 성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감성을 찾으려는 인간 의지의 표현으로 앞으로도 계속 패션에 있어 표현의 범위를 넓혀 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강정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2)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3) 김미경, "현대여성복식의 특성 및 그 의미에 관한 고찰－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4) 김미선, "근대 서구 여성복식의 기능화 요인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5)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와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1(2), 1987.
6) _____, "매스큘린 룩", 「월간 멋」, 1991년 11월.
7) 김재숙, 박춘순, 이영선, "남녀의복 동일화에 관한 태도 연구－대전과 공주군 장기면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6(2), 1982.
8) 문 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9)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10)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Clothing)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1) 조규화,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8(3), 1984.
12) 최경희, 강혜원,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

할 태도와의 관계－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9(1), 1985.
13) 최현숙, "Rudi Gernreich의 작품에 나타난 시대정신", 「한국의류학회지」, 16(4), 1992.
14) 하지수,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15)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1991.
16) 김동일, 「성의 사회학」, 서울 : 문음사, 1993.
17) 이우주 엮음, 「영한 의학사전」, 서울 : 아카데미 서적, 1995.
18) 정흥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3.
19) _____,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1.
20) Alison Lurie 저,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서울 : 경춘사, 1986.
21) M.J. Horn & L.M. Gurel, 이화연 외 2인역, 「의복 : 제 2의 피부」, 서울 : 까치, 1994.
22) Susan B. Kaiser, 김순심 외 3명역,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경춘사, 1991.
23) Alexandra G. Kaplan, Joan P. Bean, 「Beyond Sex-Role Stereotypes :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 Toronto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6.
24) Aileen Rebeiro, 「Dress & Morality」, New York : Holmes & Meier Publishers, Inc., 1986.
25)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s, 1988.
26) Carolyn G. Heilbrun,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 London : W.W. Norton & Company, 1982.
27) Claudia Brush Kidwell and Valerie Steele, 「Men and Women : Dressing the Part」, Washington :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89.
28) Diana de Marly, 「Fashion for Men : an illustrated history」, Holmes & Meier, 1985.
29)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 Virago Press, 1985.
30) Emily White(ed.), 「Fashion 86」,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6.
31)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New York : William Morrow & Company, Inc., 1980.
32) June Singer, 「Androgyny :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 Anchor Press /Doubleday, 1976.
33) Mablen Johes, 「Getting it on」, N.Y. : Abbeville Press, 1987.
34) Marguerite Duras, 「Yves Saint Laurent Images of Design : 1958~1988」, London : Ebury Press, 1988.
35) Michael and Ariane Ruskin Batter Berry, 「Fashion : The Mirror of Fashion」, New York : Greenwhich House, 1982.
36) Prudence Glynn, 「In Fashion : Dress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9.
37)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 A Cultural History」,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38) 「Webster's New Coll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achusetts, U.S.A : G. & C. Merriam Company, 1973.
39)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서울 : 민중, 1993.
40) 「Life」, 1984, September, volume 7.
41) 「Time」, 1984, July 23.
42) 「Hi-Fashion」, 1980~1994.
43) 「Uomo Collezioni」, 1990~1995.
44) 「Vogue(U.S.A, Italia)」, 1980~1994.
45) 「조선일보」, 1995, 1월 15일, p.7.

ABSTRACT

A Study on the Androgynou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The pursuit of freedom by the individual-- desire to be liberated from all forms of restrictions-- is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society. As costume is, in part, a product of the spirit of the times, it was only natural that this desire for freedom would find its expression in modern costume as well.

Among various forms of restrictions, differentiation by sex has plac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inding influences on individual behavior. From early times, the dichotomous division by sex was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of costume, and the traditional differentiation of costume by sex imposed a significant restriction on the expression of individua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modern androgynous look" was born as a by-product of the sexual liberation movemen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the concept of the individual as a complete human being rather than as a member exclusively of either the male or the female sex.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androgynous look within a coherent theoretical framework, and explore new design possibilities by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androgynous look. In addition, this paper seeks to define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androgynous look based on the premise that costume is an embodiment of the spirit of the times.

As for research methodology, both theoretical and historical methods are employed. Through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historical documents, the meaning of the androgynous look is explored from various angles, and in order to examine its place in modern fashion, androgynous styles are categorized and systematically analyzed.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Androgyny is a compound word consisting of "andro-" (meaning man) and "gyn-" (meaning woman). In modern times, this word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socio-cultural aspect of gender rather than the physical or physiological aspect with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ale and female sexes.

Androgynous styles also appear in fashion and general arts such as drama, film, dance, and music. In fashion, the androgynous look, represented by the visual superimposition of "masculine" and "feminine" elements, has emerged as a major element of the 20th-century costume, and has gained broad acceptance among those free spirits wishing to be liberated from the conventional conceptions of gender difference.

2. The androgynous look has manifested itself in 4 different modes : transvestism, masculinization of female clothing, feminization of male clothing, and the unisex look.

3. The androgynous look in modern fashion reflects the spirit of the 20th-century society and culture, and performs various functions as follows : expression of fun, change in gender roles, expression of the inner consciousness, and pursuit of the ideal human type.